

로디아, K2010에서 플라스틱 솔루션 제시

Rhodia가 새로운 플라스틱 기술들을 대거 선보였다.

Rhodia Engineering Plastics는 <2010년 K쇼>에 참가해 새로운 플라스틱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10월28일 발표했다.

Rhodia는 유기-성분 폴리아미드(Bio-Sourced Polyamide) 및 <Technyl> <eXten>, <4earthTM>의 재활용 방안과 연료 접촉 첨가제용 <Fuel'In by Technyl> 그리고 대체 금속분야에서 <Technyl Super Impact> 를 비롯해 중요한 혁신기술을 선보였다.

플라스틱 부품 제조의 한계에 도전할 새로운 폴리아미드 파우더(Polyamide Powder)를 비롯해 대량의 에너지 절약을 가능케 해줄 차세대 <TechnylStar>, 태양광 분야에 채용이 기대되는 무할로겐 Technyl 계열 소재, 획기적인 열가소성 합성수지 <Evolite> 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Rhodia는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. 설비 가동률은 경기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달성했던 10%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프랑코 히커 Rhodia 회장은 “예전의 생산량을 완전히 회복했다”며 “뛰어난 기술력으로 시장의 요구에 대처했기 때문”이라고 강조했다.

Rhodia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(DJSI World)에서 3년 연속 <세계 책임 있는 사회 및 환경분야>에서 최고 화학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혁신과 성장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10/10/28>